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 성공개최 지원

# 2012 KOMAS

KOREA MODERN ART FAIR SPECIAL EXHIBITION

“7개국 월드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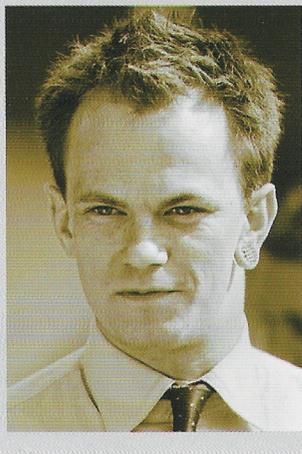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짐바브웨



KOREA MODERN ART FAIR SPECIAL EXHIBITION

# MARTYN THOMPSON

## 마틴 톰슨



5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출신 예술가

2012 COEX Handmade Art 2012, COEX Exhibition Hall, Samsong Dong, Seoul, Korea  
Myeongdong Global Art Festival, Myeongdong Gallery, Myeongdong, Seoul, Korea  
The Nude Collection 2012 (IAC), Golmok Gallery, Itaewon, Seoul, Korea  
Homo-Sapiens(First Curated Exhibition), Golmok Gallery, Itaewon, Seoul, Korea

2011 Warm Picture, Golmok Gallery, Itaewon, Seoul, Korea  
Immersive Environments (First Solo Exhibition), iGallery, Insadong, Seoul, Korea  
Goyang International Art Fair 2011, Goyang City, Gyeonggi Do, Korea.  
Unravel 2011, Group Exhibition, Myeongdong Gallery, Myeongdong, Seoul, Korea  
Narrative Structure, Group Exhibition, THEO Space, Hongdae, Seoul, Korea  
Korea IAC Online Exhibition, Internet Exhibition

옥스퍼드와 노스햄턴 대학에서 백남준에 대한 진보적 테크놀로지 아트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디지털 환경에서 비롯된 가상현실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은 여전히 대중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서, 컴퓨터 게임의 엔진을 응용하여 고안된 제니 홀저의 'World II'를 말할 수 있다.

마틴 역시 그의 영향으로 근본적인 예술작업의 방향성을 구축했던 한 사람이다. 특히, 가상현실에서의 관찰자가 느끼는 높이와 깊이에 대한 시각적 환영이 결국 거짓이라는 설정이 그러하다.

마틴의 처녀작은 여럿의 비디오를 콜라주로 엮은 작품, 'Four Cities'다. 그 작품은 관찰자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시야를 표현했다.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마틴은 잉글랜드와는 상이한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 매료되었다. 그 후 여러 산의 사진작업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독창적인 작업과정을 발전시켰다.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비교적 큰 규모의 50여개의 콜라주가 완성되었으며, 당시의 성과는 2011년 서울 인사동에서의 개인전으로 소개되었다.



마틴이 한국에서 제작한 최초의 작품 'Mani San'은 가을의 아름다운 컬러와 도시와 구별된 목가적 정서를 담았다. 실제, 마틴은 그러한 마니산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사진 콜라주 방식의 창작활동에 의미 있는 시발점으로 작용되었다.

한민족에게 마니산은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마틴은 음양오행사상과 오방색의 세계관에 심취되어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한민족의 정신적 발원지인 마니산이 다시 관심의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웠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연구과정은 마틴에게 한국과 서양세계의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예술세계를 형성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마틴의 작품세계가 보여준 기술적 발전과 표현 방식의 변화는 여러 장의 아크릴을 쌓아올리는 'layering'(겹치기)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 layering된 아크릴 위의 프린팅이 착시적 원근감을 일으키며 일종의 가상현실을 제공한다.

지금껏 그래왔듯 마틴은 새로운 기법과 기술적 실험에 힘쓰므로써, 그가 조우한 아름다운 세계를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시각적 방식으로 그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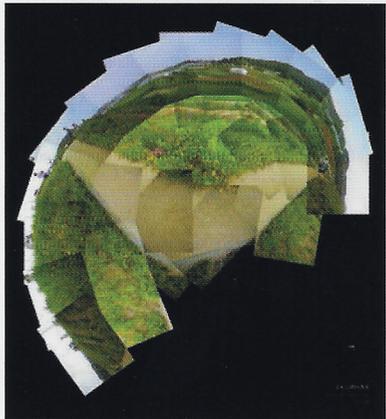
MARTYN THOMPSON



Mani San | 950 x 1029mm 2008



Shimhak San Snow | 1440 x 1540mm 2010



Shimhak #1 | 800 x 870m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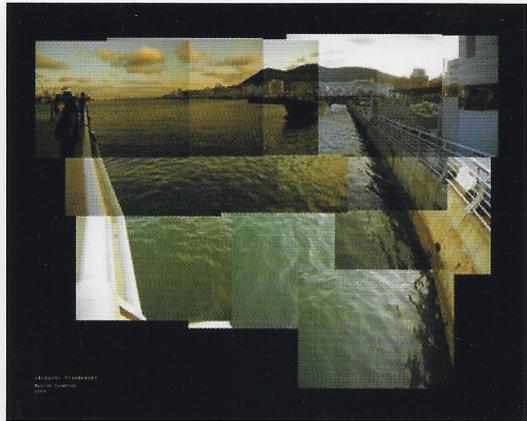
Shimhak #2 | 1480 x 1120mm 2008







Munsubong | 800 x 870mm 2010



Jalgachi Fishmarket | 571 x 454mm 2008

